

# 방화범의 심리상태

송 재 철 <화재원인조사 전문가>

기가 몸담고 있는 절에 방화한 젊은 스님은 어떤 일때문에 주지로 부터 파문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절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행복스러운 모습에 심한 질시와 반감이 생겨 방화했다고 했다. 심리학자는 이를 행위자가 변민하는 가운데 평소 영웅적인 일을 해 보고 싶은 과대망상과의 두 가지 깊은 의식에 얽매어 결국 방화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류의 변질자나 사회를 저주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에서 저지르는 방화도 적지않고, 우발적이고도 사소한 일로 빚어지는 방화의 예가 청소년들에게 많음은 이미 이야기한 바 있다.

불을 놓는 것이 재미있어 조금씩 장난으로 한것이 커져서 불자동차가 싸이렌을 울리며 모여들고 사람들이 물려드는 등 화재소동에 흥미를 느끼고 여러번씩이나 방화하는 예는 자주 있는 일이며, 화재를 조기에 발견한 공을 자랑하기 위함이라든지 빠른 시간에 진화를 하여 칭찬을 더 듣고 싶어 방화한 예도 있는 것이다. 외국의 예이지만 결혼한지 얼마안된 젊은 소방관은 소방차에 타고 화재현장으로 출동하는 자신의 용감스러운 모습을 신부에게 으시대고 싶은 기분에서 여러차례 방화하고 현장에 출동한 예도 있는가 하면, 18세의 소년이 오래전 부터 누이처럼 생각하고 연모하던 23세년 여교사의 비행소문이 돌자

배신당한 기분에서 여교사의 집에 방화한 예도 있는 것이다. 그외에도 미신에 의한 방화도 가끔씩 일어난고 있다. 여하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찮은 일이나 사소한 동기로 범행을 저지르는 예가 방화에는 의외로 많음이 타범죄와 다른 한 특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원한이나 감정에 의한 방화에는 알코올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빼놓을 수가 없다. 한 조사에 의하면 이런 방화자중 64%가 음주후의 범행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또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방화로는 연쇄, 연속방화가 대표적일 수 있다.

198×년 1월 20일부터 3월 30 일간 19시에서 07시 40분 사이의 밤중을 튜타 서울 J동과 그 인접 Y 동 등 5개동에 걸쳐 주택 20개소에 불을 지른 연속방화사건이 있었다.

방화범은 K(18세)로서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부모들의 지나친 공부 독촉에 대한 저항감이 다가 애인 B양(19세)의 변심으로 젊은 여자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 충동적으로 자주 뛰쳐 나가게 되었고 그때마다 대문이 열려 들어가기 쉬운 다세대가 거주하는 집만을 골라, 방문이나 부엌문이 잠기지 않은 곳 중 여자들만 살거나 결혼 사진이 없는 젊은 남녀가 동거하는 방이라고 생각되면 들어가서 방을

뒤져 현금과 귀금속을 훔치고는 현장에 있는 석유를 옷장이나 책상 등에 뿌려 불을 지른 뒤 안방 등에 사람기척이 있으면 불이야 하고 소리치면서 도주해 왔다는 것이다.

동기가 모호한 이러한 방화는 주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범행후 도주가 쉬운 장소를 택하는 점과 범행시간도 대부분 주민들의 왕래가 비교적 뜸한 야간에 이루어 지고, 비교적 큰 피해를 원치않아 옥외쓰레기통, 현수막, 고물더미, 자동차 등과 같은 대상을 택한 점이 특이했다.

198×년 12월 27일부터 다음해 198×년 9월 15일간 서울 K동과 D동 등 인접 7개동에 걸쳐 소규모의 공장, 창고, 관자집, 주택 등 14개소에 불을 지른 연속, 연쇄방화 사건은 사망자까지도 1명이나 생긴 화재로서 방화전과 3범인 인근 S동에 사는 B(21세)의 범행임이 밝혀 졌다. B는 일정한 직업없이 아침, 낮, 밤의 때를 가리지 않고 출입이 용이한 장소만을 골라 현장에 있는 기름이나 종이 등을 사용하여 야적된 물건 등에 재미로 쉽게 불을 내고 도주한 일도 있다.

198×년 5월 15일부터 5월 26 일간 주로 새벽에 K시 M동에서 발생한 15건의 화재는 프로판가스

의 호스나 플라스틱뚜껑, 비닐이나 플라스틱제품, 승용차카바, 현관의 신발상 같은 분단속이 되지 않았거나 침입하기 쉬운곳,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타기 쉬운 물건들에서 발화하여 처음에는 별 것 아닌 불로 신고조차되지 않았던 것인데 화가 기뻐지면서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게 되어 신고된 것으로서 곧 방화로 판단, 범인의 색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찰은 즉각 기동력과 검기요원을 비상 이동배치하여 범인의 도주로를 차단함으로써 결국 불을 지른후 도주하는 범인을 검거한 것이다.

범인은 K시의 모중학 2학년을 중퇴하고서 그해 겨울에 모정밀공장에서 공원으로 일하는 14세 소년이었다. 김군은 7세때 부터 1년에 2~3회씩 간질증세를 일으켜 약을 복용한 병력이 있으나 약 3년전부터 간질증세는 뜸한 편이었는데 근간에는 불면증세가 생겨 동네를 배회하다가 선배 소년 2명으로 부터 밤에 프로판가스 호스같은 것에 불을 붙이면 재미있다는 말에 평소 TV에서 불이나는 장면에 흥미와 호기심을 느끼던 차에 귀가 싫게해져 성냥을 갖고 다니면서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다.

198×년 8월 7일부터 다음해 6월 4일간 서울 S동에 있는 봉제완구를 만드는 공장에서 7차례나 연속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일이



있다. 일련의 화재사건이 사람이 없는 낮시간에 연속적으로 발생해 보험금 사취를 목적으로 한 방화라고 보기에는 부정적 요인이 있었으나 봉제완구업계의 불황으로 공장 경영이 어려워진데다가 화재의 피해액에 비해 보험가입액이 과다한 점 등으로 사장형제가 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해 방화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사장의 친·인척, 경리 여직원,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집요하게 내사하고 있던 차에 6월 27일 13시 15분경 또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화재에 불안감을 떨쳐보고자 상호도 바꾸고 공장을 인근건물의 지하로 이사한지 3일밖에 안되어 전직원들이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던 때였다. 따라서 이 불의 목적은 경제적 목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음이 확실해졌고 진화 당시 화재현장에서 거동이 아주 무자연스러웠던

14세 난 공원 I군에게 조사의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현장조사중 발견된 고동색 가스라이타는 I군이 화재직전인 12시경 인근 구멍가게에서 직접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I군은 1년전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이 회사에 공원으로 입사한 이래 하루 11시간 이상씩 근무하는데 지쳤고 어린나이에 놀아 볼 시간은 고사하고 잠을 싹쓸 자 보질 못해 아버지에게 그만두겠다고 몇 차례 졸랐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운데 어떻게 안다 니냐며 계속다니라고 하자 작업할 일감이 줄어들면 그만큼 일도 쉬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종업원들이 모두 나간 점심시간등을 틈타 처음에는 창고내의 원단에 불을 질러 목적을 이룬후, 재미를 느낀 나머지 계속 불을 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㉞